

입장권 얼마나 팔렸나

10만 7000석중 7만여석 채워질 듯

“메인그랜드 1만6000석 100% 판매”
초청인사 많아 매진과 판매량 차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리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입장권은 얼마나 팔렸을까.

경주장 건설 비용만 3000억이 넘는데다, 코리아 F1대회의 경우 자체 예상수입 742억원 중 입장권 판매수입이 564억원으로 약 7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따라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느냐를 판단하는 티켓 판매량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카보(KAVO)는 20일 “공식적인 입장권 판매 현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다양한 판매정책으로 인해 정확한 집계 이뤄지지 않은 점과 판매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F1 대회 등의 사례를 들어 비공개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F1 대회조직위원회측은 전체 10만7000여석의 좌석 가운데 6만5000석~7만석의 좌석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만6000석의 메인그랜드스탠드의 경우 전 좌석이 가득 찰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티켓 가격은 좌석별 특징에 따라 매겨진다. 최고가인 메인그랜드스탠드 골드석은 머신들의 스타트와 피니쉬의 감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흥미로운 볼거리인 ‘피트스탑’(머신 정비소)도 눈앞에서 펼쳐지고 개막식 등 각종 이벤트

도 이 좌석 주변에서 치러진다. 메인그랜드스탠드 골드의 3일간 종일권이 101만 2000원으로 가장 비싼 것도 이 때문이다.

예선전이 열리는 토요일 하루 관람하기 위한 메인그랜드스탠드 심바 좌석도 61만 4900원에 이른다. ‘F1 서킷은 황금으로 깔려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티켓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도, 이 좌석이 모두 팔렸다면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좌석이 모두 채워졌다고 해서 ‘매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첫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내의 인사들이 초청 형태로 이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남도측도 “좌석이 모두 채워질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판매량 집계 이뤄지지 않은데다, 초청장으로 들어오는 관람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인그랜드스탠드를 제외한 그랜드스탠드도 5만4000석이 채워질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했다. 모두 18등급에 ‘전일권’과 ‘토요일권’(예선전), ‘일요일권’(결승전)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그랜드스탠드 A·B석은 추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어 다이내믹한 머신들의 격돌을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 충격적인 사고 장면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좌석. 그랜드스탠드 D석은 중저속 코너에 있어 역동적인 코너 탈출의 묘미를 선사하는 곳이다.

E~G석은 고속 코너링의 묘미를 볼 수 있는 좌석. 지형 여건상 경기장내에서 머신의 굉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어 귀마개는 필수다. 최근 신설된 M석은 1.2km의 직선코스에서 시속 320km로 질주하는 머신을 마주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사흘 앞둔 20일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사 앞에서 슈퍼카들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무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슈퍼카 퍼레이드... 문화행사 스타트

24일까지 콘서트, 요트·에어쇼

지구상 최고의 스피드 축제인 F1(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를 앞두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개막을 이틀 앞둔 대회 개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첫 시동을 건 것은 ‘슈퍼카 퍼레이드’.

이 퍼레이드에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 페라리, 시보레 디럭스, 피아트 500 등이 등장해 전남도청 앞 광장과 목포 시내 전역에서 이뤄졌다. 이 퍼레이드는 24일까지 목포 시내 전역에서 펼쳐진다.

대규모 ‘F1 대회 성공기원 특집 콘서트’도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50척이 넘는 요트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전남도와 제주도는 대회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국제요트대회’를 평화광장 인근 바다에서 진행한다.

영암 서킷에서도 23~24일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항공기 T-50 8대의 고난도 에어쇼와 CH-47 헬기의 퍼포먼스가 대회 시작 전 펼쳐지고 취타대의 연주, 어가행렬, 강강수월래, 태권도 및 검무 등도 잇따라 열려 관람객들의 흥을 돋운다.

평화공원 광장 및 해변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도 펼쳐진다. RC카 체험, 레이싱카 및 클래식카, 슈퍼카 전시회 등도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 F1 문화행사 (F1 Speed Up Festival)

구분	시간	장소	20일(수)	21일(목)	22일(금)	23일(토)	24일(일)
주무대	17:45~18:00				판타스틱	점프	배틀비보이
	18:00~18:30			군악대공연	군악대공연	군악대공연	+김덕수 판
	18:30~19:00	목포	의정대공연	F1 Boom up Time	F1 Boom up Time	F1 Boom up Time	F1 Boom up Time
	19:00~20:00	평화광장 주무대	인디밴드공연	공식개막식	Jump Up Concert	Speed Up Concert	Run Up Concert
주무대	20:00~22:00			특집 공개 방송 2NE1-유기스 <불꽃소>	김태우 등	크라임넷 등	노라조 등
	22:00~24:00						

거리문화행사 프로그램

구분	시간	장소	20일(수)	21일(목)	22일(금)	23일(토)	24일(일)
거리문화행사	17:00~19:00	목포시내일원		카 퍼레이드			
	22:00~22:30	평화광장 도로		이간 드라이브시범			
거리문화행사	19:00~20:00	사람의 광장		Open Stage	슈퍼스타 F		
				맨스포츠	락밴드	비보이	스타발굴 공개오디션
	20:00~21:00			문화공연			
				아케라라	퓨전국악	전지현악	브라밴드

F1 이모저모

벨기에 취재팀 가장 먼저 미디어센터 등록
막바지 공사 일당 16만원 고액 알바 모집

○F1 코리아그랑프리 개막 이틀을 앞두고 국내·외 미디어들이 영암으로 몰려들고 있다.

해외미디어 중 벨기에 취재팀이 20일 오전 가장 먼저 영암서킷의 미디어센터 등록을 마치고 국내 미디어들도 등록을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보도진 250여명 등 총 400여명의 국내외 취재인력이 한국대회 취재 경쟁에 나선다.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한국대회에 대한 미디어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대회기간 서킷에 대한 정밀분석은 물론 경주장 주변시설, 지역 호응도, 문화행사 등에 대한 세계 각국 취재진의 열띤 취재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등록센터 관계자는 “첫날이라 아직 많은 기자들이 오지는 않았다”며 “20일과 21일 대부분의 취재진이 등록을 마칠 것이다”고 말했다.

○F1 경주장 막바지 공사에 일당 16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에는 ‘영암 F1 경기장 아르바이트 급모집’이라는 제목으로 300명의 인력을 모집한다고 광고가 올라와 있다.

공고를 올린 업체에 따르면 모집된 인력들의 업무는 F1 경주장 가설스탠드 등지에 아직 설치 못한 의자를 조립, 붙이는 일이다.

업무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다소 길다. 또 짧은층이 많은 광주에서 인원을 모집, 영암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업무 2시간 전인 새벽 5시에 광주시 북구 풍향동으로 집결해 관광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현재 인력 시장을 거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단순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에 달하는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촉박함을 반증하는 셈이다.

경주장 손님이 준비 완료

○1주일 전만 해도 휴먼저널리즘 영암서킷이 이제 마무리 단장을 마치고 첫 한국F1대회를 지켜 볼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불산단에서 경주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는 도로시설물까지 깔끔하게 설치됐으며 경주장 입구의 주차장에도 자갈이 모두 깔렸다.

경주장 안으로 들어가는 보도블록도 모두 설치됐으며 경주장 내부 도로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심어져 썰렁했던 1주일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건설현장사무소가 있는 경주장 입구는 임시 통제소 등으로 어수선한 모습이지만 대회진행중에는 한국최초의 국제공인 그레이트A 등급 경주장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광지 순환 버스 운행

○영암군이 대회기간 영암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암의 주요 관광지와 F1 경기장을 운행하는 관광버스를 운영한다.

광주와 목포방면 2개소에서 운영하며 광주방면은 오전 10시 광주역을 출발해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광주공항을 거쳐 F1 경기장, 도기박물관, 왕인박사유적지, 도갑사를 둘러보는 코스다.

목포방면은 오전 10시 목포역~목포 시외버스터미널~F1 경기장과 영암 주요관광지를 순환하며 차량에는 문화관광해설사 1명씩이 함께 탄다. 이용 방법은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회의(061-470-22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F1 알고 보면 재미 두배

④ 깃발

녹색-안전 적색-사고 흑색-패널티 흑백-경고

F1(포뮬러 원) 경기에는 각각의 깃발이 등장한다.

깃발은 각기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경기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깃발의 색만 봐도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레이스 중 보이는 녹색기는 트랙 위의 위험 상황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마음껏 달려도 된다는 의미다. 청색기는 뒤에 추월을 시도하는 더 빠른 경주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깃발. 보통 선두권에 한 바퀴 이상 뒤진 차들을 대상으로 한다.

흑색기는 경기 도중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받은 드라이버 차 번호와 함께 등장하는데 3바퀴 이내에 피트로 들어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백색기는 트랙에 급급차나 견인차 등이 투입됐으니 조심하라는 뜻. 적색기는 레이스 중 사고가 났다는 의미로 더 이상 경기가 어려울 때 등장한다.

노란색 깃발은 트랙에 사고가 났으니 감속을 하라는 뜻이며 이 때는 추월이 금지된다. 흑색과 백색이 대각선을 따라 나뉘어져 있는 흑백기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드라이버에 대한 경고 깃발이다.

노란색 바탕에 세로로 붉은 줄무늬가 있는 오일기는 트랙 노면에 오일이 흘러 미끄럽다는 신호. 흰색과 백색이 번갈아가며 체크무늬를 이루고 있는 체크기는 모든 경기가 종료됐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이다.

/김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붓짐장수 쉬어가던 인심고을, 수백년전 조선시대로의 여행
정읍 청량리 ‘송삼봉 조선동네’로 가을 나들이 오세요

정읍시청에서 직선거리로 12.85km 떨어진 곳에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간 작은 마을이 있다.

아궁이에 불을 때 가마솥 한 가득 쌀밥을 짓고, 100개의 장독대 옆 주막집 굴뚝에는 밥짓는 연기가 모락

모락 피어난다. 휘어진 나무기둥에 지푸라기와 흙을 섞어 벽을 만들고, 지붕엔 짚으로 엮은 이엉에 용마루를 얹어 만든 안은뱅이 초가집이 모여있는 이곳은 정읍시 이평면 청량리 ‘송삼봉 조선동네(洞內)’다.



단체연수·숙박·식사 가능·연중무휴
예약전화 063-532-0054
전북 정읍시 이평면 청량리 375-5번지

